

협 회 동 정

「'95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곧 발간

우리협회는 '95년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정보통신산업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정보 정책자료 및 민간 기업의 경영전략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이 실태조사는 금년이 제 5 회로 지속적이고 일괄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인정 받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관련 2,000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 설문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5월에 시작 6월말까지 자료 교정 및 입력을 끝낸데 이어 7~8월중으로 통계처리를 마치게 된다.

오는 10월에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조사범위는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산업 △하드웨어산업 △SI, LAN, 이동통신서비스 등이며 이들 각각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한다.

기업 내부사용 DB실태조사 실시

우리협회는 기업이 보유하고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하우스(IN-HOUSE)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최초인 이번 인하우스 DB 실태조사는 각 업종별로 샘플링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하우스 데이터베이스란 기업의 인사, 조직, 생산 및 영업활동을 포함한 모든 기업화에 필요한 내·외부자료를 일관된 체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사사용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조사 기간은 8월 10일까지이다.

WTO 기본통신협상 설명회

우리 협회는 8월 17일 WTO 기본통신협상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오는 97년 기본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의 WTO 기본통신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를 통해 국내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조분위기를 조성하고, 거본통신시장에 대한 관·산·학·연의 관심제고를 통한 협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내 용	발 표 자
개회인사	신범식 부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WTO 기본통신협상의 전반적인 진행상황	주현정 국장 (정통부 WTO 대책단장)
외국의 통신시장 개방동향	최병일 연구위원 (통신개발연구원)
휴 식	
외국의 양허요구 수준	강문석 서기관 (정통부 WTO 대책단장)
· 민간업체 요구사항 및 애로수렴 · 정부, 민간업체 공조를 위한 의견교환 및 종합정리	
사 회	현호중 상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 불건전정보 유입이 큰 논쟁거리로 떠올라 있다. 사진은 인터넷 불건전 정보방지 워크숍 장면.

인터넷 불건전정보방지 워크숍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95. 8. 7일 협회 회의실에서 인터넷 불건전정보방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마련된 워크숍은 정보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불건전 정보의 접근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것인가를 위한 것이다. 인터넷의 불건전정보 검색 및 유통의 예방, 건전한 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불건전 정보 접근 방지를 위한 기술대책 마련, 불건전정보 유통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자리였다.

약 3시간동안 진행된 이 워크숍의 주제발표는 한국전산원의

오익균부장과 아이네트기술의 허진호 사장이, 주제토론에는 정보통신부의 강성철사무관, 시스템공학연구소의 한근희연구원, 데이콤의 박영신팀장, 파워넷의 김동빈사장, 전자신문사의 정영태 기자와 문화일보사의 김강호기자, 연세대학교의 김준용, 김한사일 학생이 토론에 참가했다.

인터넷의 기술개발자의 입장에서 또한 사용자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각각 발표, 토론된 이 워크숍에서 먼저 기술개발자 입장에서 주제 발표한 허진호 사장은 공동적인 문제점으로 금지목록의 선정의 어려움, 신규금지 사이트에 대한 추가의 복잡함, 금지 사이트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대표적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ISP의 하드웨어적인 접근 방지와 ISP가 모든 인터넷 내용을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용자들의 자율적인 절제와 계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한국전산원의 오익균부장은 온라인 정보와 인터넷상의 불건전한정보를 사례로 들며 이에 대해 “컴퓨터 외설 통신 금지법” 가결이라는 미국의 방지대책법도 소개했다.

또한 인터넷 이용확산으로 나타나는 또다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윤리정착을 위한 노력과 정보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계몽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주제 발표를 매듭지었다. ●